

# 주안에게

##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8  
Aug. 2017  
Vol.5 No.8



- 주안예빛/ 주안에라이프
- 주안에골프대회
- 권사회/안수집사회
- 교육부 소식 • 간증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주안예교회 창립 4주년 감사예배를 드린 후 찬양팀과 청년부 회원들이 활짝 웃고 있다. <사진: 조원용 기자>

## 넘치는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 ■ 창립 4주년 감사예배

7월 30일 오전 11시, 벨리채플에서 창립 4주년 감사예배가 벨리, 엘에이, 플러튼채플 연합으로 드려졌다. 주안예교회에서의 연합 예배는 이제 익숙한 일일 것이다. 이런 익숙한 진행은 마치 명절이면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교통체증과 인파를 뚫고 큰집에 모이고 큰집은 가족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해졌던 추억이 떠오른다. 각자 형편이 허락되는대로 서둘러 귀향하여

식구들과 나눌 음식을 만들고 자녀들이 하나 둘 분가하면서 썰렁했던 집은 모여든 가족이 누워 잘 자리를 만드느라 애를 먹던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는 주안예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예배로 자리매김한 듯하다. 메뉴를 정하고 각 채플의 섬김의 고수들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주차봉사, 예배 안내를 위하여 기존멤버 이외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힘을 합했다. 타는 듯한 불볕더위도 속속 벨리채플로 모여드는 성도들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문지기인 주차봉사자들과 예배

안내원들의 낮빛을 어둡게 하지 못했다. 당연한 듯 주고 받지만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하고 첫사랑을 만나듯 설레이며 기쁨으로 마주하는지 생각해 보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IKIDZ의 감쪽한 찬양과 율동을 시작으로 선한 목자되신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마음 다해 눈물로 드린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

<11면에 계속> | 채은영 기자 |

■ 주안예빛(벨리) 개강

##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읽기’ 50여 성도들 열기

벨리채플 제4기 주안예빛 훈련이 8월 8일(화) 시작하여 10월 30일(화)까지 12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에 앞서 지난 8월 6일(주일) 오후 2시 101호실에서 주안예빛 예비훈련이 약 1시간동안 진행되었는데, 이번 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50명이나 참가 신청하여, 벨리지역의 무더운 여름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안예빛은 주안예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꼭 이수해야하는 평신도 필수양육과정의 하나로써, 90일 통큰통독을 교재로 다섯분의 목사님, 전도사님들께서 전문적으로 강의를 맡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 책의 특징은 성경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강의를 하고 또 시대적 배경을 심도있게 다루어 나감으로, 지금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배울 수 있어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지난 수강생들도 호평을 한 바 있습니다.

주안예교회 평신도사역원(이하 평사원)에서



수고하시는 안희성 권사는 주안예빛의 강의과정과 학습방법, 훈련의 목적과 훈련의 준비등 훈련생으로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설명하고, 앞으로 12주동안 훈련생 지침을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미란 전도사의 인도로 모두 함께 기도하고, 12주동안 초심을 잃지않고 모두가 끝까지 이 과정을 잘 마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세상의 일로 피곤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안에 빛 훈련을 사모하여 벨리채플로 달려오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기를, 그리고 인도하시는 감사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이광영 기자 |

■ 주안에라이프 가을학기 개강

## 신나는 개학... 18개 클래스 배움의 즐거움 가득

벨리지역 씨니어 성도님들을 위한 주안에라이프가 2014년 9월 가을학기를 시작으로, 지난 8월 23일 벌써 제 7기의 개강을 맞이하였습니다. 매년 봄학과 가을학기를 진행하며, 이제는 지역사회와 교인들을 위한 교회의 대내외적 사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과 헌신으로 18강좌로 늘어난 이번 학기는, 탁구와 색소폰 지도에 김종환 장로님, 성경공부에 이재조 전도사님, 편물반 지도에 이용화 권사님과 이양자 권사님, 컴퓨터 강좌에 박현동 목사님, 스마트폰 강좌에 정도영 장로님, 기타교실과 노래지도에 오병순 권사님, 미니 하프에 황영옥 권사님, 생활영어 강좌에 리처드 김 집사님, 라인댄스와 스트레칭 지도에 서정아 전도사님, 하모니카와 건강댄스 지도에 이용식 장로님, 바둑 지도에 피터천 목사님, 키보드에 임아라 간사님, 연주자반(양상블) 지도에 스테파니 하 집사님 그리고 배드민턴 지도에 허경자 집사님과 두분의 집사님등 총 16분의 강사님들이 연세 많으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첫 시간, 오전 9시에 모여 이미란 전도사님의 사회와 박현동 목사님의 말씀, 김경배 집사님의 기도, 오병순 권사님의 찬송 인도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고, 각 클래스별 선생님과 주방팀 소개에 이어서 서정아 전도사님의 율동 인도로 몸을 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외적으로 인기와 평판이 높은



것은 매 수강 날마다 제공되는 아침간식과 점심식사로 주안예교회에서도 음식솜씨 좋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일급식단입니다. 매년 색다르고 손이 많이 가는 한식 식단은 주안예교회 교인들도 대접받지 못한 특별한 영양식으로 수강생들만이 맛볼 수 있는 특급식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담당 사역자이신 이미란 전도사님은 이번 가을학기에도 많은 수강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수강생들 학습편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습내용을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여 더욱 알찬 강좌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100세시대를 맞이하여 운동, 음악, 바둑, 편물등... 과거에 하지 못했던 공부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여 활용한다면 누가 고령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는 시절을 잘 타고

태어난 복 받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을 이 시간들을 즐기고 배우면서, 노년기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언젠가 뒤돌아볼 때 지금이 황금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Senior Academy인 주안에라이프는 연세 드신 교우님들을 위한 교회의 중점 봉사사역으로, 믿음생활 가운데, 성도간의 교체와 건강증진에 활력소가 되는 방향을 지향하며, 무엇보다도 본교회의 55세이상, 시간이 되시는 모든 교우님들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주안에라이프에 더욱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배 국장님은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 김신실 기자 |

■ 주안에 골프대회

## 무더위 날려버린 힘찬 스윙... 필드 위에 웃음꽃



주안에교회 매년의 행사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골프 경기가 무더운 8월 19일 토요일 벨리 Knollwood Country Club에서 있었습니다. 벨리가 지역상 더위가 심한지라 걱정을 많이 했지만 플러턴과 LA채플 합병을 위한 성전마련 기금모음에 참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인 39명의 골프회원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는지 약간의 바람을 선사하셔서 다행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코스도 그리 어렵지 않았고 초보인 사람도 쉽게 칠 수 있었고 좀 긴 코스에 다소 힘이 들긴 했어도 준비된 김밥과 핫도그, 시원한 물 제공으로 재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무덥고 찡찡 내리쬐는 햇빛 아래에 드넓게 펼쳐진 Green 위 깃대를 향해 두려움 없이 한타 Good Shot을 날릴 때의 기분은 무겁게 나를 억누르고 있는 스트레스를 빠르게 나르는 조그마한 공위에 듬뿍 담아 날려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Par3 홀에서 단 한 타로 홀인원을 꿈꾸며 무리한 욕심을 부려보지만 이내 벙커로 공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보아라! 너희들이 행운만을 바라는 욕심을 갖고 승부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더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 줄을 깨닫게 하려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Sand Shot으로 많은 점수를 잃고 나서야 그 수렁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음이 마치 모든 스포츠 경기에 임할 때 마다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확 트인 자연의 아름다움에 어우러지듯 반듯하고 깨끗하게 놓여진 Green를 바라보며 멋진 Shot을 해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임해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의 실망감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치켜세워 주시는 한마디 “마음을 비우고 힘껏 날려보세요!”의 격려의 소리는 '바로

이거다'하는 탄성과 함께 느끼는 승리감이야말로 혹은 환한 환경 속에서도 골프를 하게 되는 매력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늦은 Tee Off로 인해 마지막 조는 18홀까지 완주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지만 모든 골프회원님들은 서로에게 격려와 칭찬의 악수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같이 하면서 몇몇 회원님들이 기증한 많은 도네이션의 상품과 트로피를 최혁 담임목사님과 함께 풍부히 나누며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챔피언 상으로 김복삼 장로님께서 트로피와 골프팁장 김재동 집사님께서 후원해주신 상금을 받으셨지만 상금 또한 교회 기금으로 바로 기부해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남겨주셨습니다. 일 년에 한번으로 끝나는 골프경기이지만 매회 때마다 이루어지는 도네이션은 주안에교회의 아름다운 연중행사로 바로 세워 나가길 소망해드립니다. | 오윤선 기자 |

■ 특별새벽예배(벨리)

## “하나님이 현실이 되어 상황을 바꾸는 할레신앙”

지난 8월 7일 부터 8월 12까지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통과한 할레신앙”을 주제로 갑작 특별새벽예배가 열려 많은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벨리채플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첫날부터 연속 6일을 계속해서 강의식으로 진행된 특별새벽예배에서 최혁목사는 “십자가를 통과한 할레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 상황에서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 할레신앙이 없는 자의 삶과, 우리와 함께하시는 자,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할레신앙을 가진 자의 삶을 심도 깊게 다루었다.

지혜가 사라지고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백성들을 죄의 자리로 몰고 가는, 할레 없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현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만나는 상황을 바꾸는 삶인, 십자가를 통과한 회복된 할레의 신앙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회복된 할레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선, 역사와 의지를 보고 그 현장에서 주안에교회와 함께 일하시며 뛰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강조 하였다.

이 특별새벽예배의 특별한 메시지인 할레의 신앙의 회복은 참석한 모든 주안에교회 성도에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할레신앙 회복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

| 박창신 기자 |

■ 플러튼 안수집사회/권사회

## 새로운 일꾼들 ‘충원’ 교회사역 활력 넘쳐

플러튼채플의 안수 집사회와 권사회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새로 임직되신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로 든든하게 충전되어 새 힘을 받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도 비록 적은 수였지만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주안예교회의 주춧돌이었습니다.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충성을 다하시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임직을 받으신 분들과 함께 봉사를 하게 되어 많은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 임직되신 분들은 물론 지금까지도 누구 못지않게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해 오신 분들이십니다. 이번에 그 일들을 새로 안수집사회와 권사회라는 교회의 조직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



고’라는 한국의 속담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큰 힘을 받게 되어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두 모임이 같은 시간에 열린 관계로 박현동 목사님께서서는 권사회에만 참석하셔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플러튼채플의 안수 집사회와 권사회의 회칙은 벨리채플의 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고칠 수 있으니 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회원들과 새로운 회원들이 잘 협력하여서 주안예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안수집사회

와 권사회에서 해 오던 많은 일들을 점검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협조할 수 있는 일들을 토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모임이 해야 할 사역들을 검토하고 기존의 회원들과 새 회원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새로운 사역들을 해 나갈 것인가를 토의하였습니다. 토의 내용으로는 파킹 안내, 대표기도, 친목을 위한 행사들(탁구, 테니스, 등산 등등), 교회 이전에 따른 협조 사항들, 부역 봉사, 주일학교 봉사, 교회 청소 및 관리 등등 많은 문제들이 검토되고 토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기 장로님과 이 정희 권사님 댁에서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부부 동반으로 초대하여 친목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 조성운 기자 |



■ 플러튼 권사회 단합회

##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의 어머니’ 역할 다짐

플러튼 권사회가 주축이 되어 이정희 권사님과 이천기 장로님 댁에서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은 부부 동반으로 열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맛있는 요리들을 장로님과 권사님이 며칠을 두고 준비도 하셨지만 또 요리하면 빠질 수 없는 권사님들이 앞 다투어 준비를 해주셔서 요리들을 한 상에 놓기 어려울 정도의 성대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뒷마당 경치가 너무 좋네요. San Gabriel Valley가 다 보이는 너무 멋진 경치에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컨트랙터이신 이 장로님께서 뒷마당을 너무 멋있게 고치시고 가꾸어 놓으셨습니다. 뒷마당 파티오에 만들어 놓은 평상은 정말로 멋진 작품입니다. 집안에서는 권사님들의 모임에 웃음꽃이 그칠 새가 없고요, 밖에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화기에애한 담소가 이어졌습니다. 식사는 무엇을 먹어야 하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풍성한 식탁이었습니다. 이 권사님 음식 솜씨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말 일품입니다. 심장이 안 좋으



셔서 수술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장로님의 외조와 따님이신 지현 자매님과 친구 분이 도와주셨지만 말입니다.

식사를 하며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자연스럽게 논의되었습니다. 권사들은 교회의 어머니들인 만큼 분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주안에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변으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을 사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을 내십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들도 덩달아 활발히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 기도하는 권사회가 되십시오. 기도는 교회의 산소이고 생명줄입니다. 새벽부터 각종 기도회에 권사회가 주축이 되고는 있지만, 더욱 열심히 분발하여 주안에 교회의 활력소가 되어보십시오. 이런저런 제안에 함께 하자는 결의가 안으로부터 시작되자, 밖에 있는 낭군들도 동참하는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소속된 주안에 교회에 충성하며 봉사는 것입니다. 이정희 권사님, 이천기 장로님, 그리고 지현 자매님, 감사드리고 늘 주님이 함께하시는 행복한 가정 되세요. | 조성운 기자 |

■ 벨리 권사회 모임

## ‘웰컴 신입권사님들!’ 따뜻함과 배려에 감동

7월 마지막 주 벨리채플 권사회 모임이 토요일 새벽기도 모임 후 주안에교회 101Room에서 있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권사님들을 환영해 주는 시간들이 만큼 잘 차려진 다과와 Refreshment를 앞에 두고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자리에 예쁜 선물과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이 자리가 "주안에교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감 있게, 충성되게 섬겨야 할 자리임을 예정한 것처럼.... 포장된 선물을 열어보는 순간 기쁨의 탄성과 함께 핑크와 파랑색의 커버를 가진 조그마한 성경책에 이내 권사님들이 신입권사에게 바라시는 마음을 읽어내는 듯했습니다. 잠언서, 시편, 전도서 이 3권의 말씀들을 읽으며 매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온순하며, 순종하여, 헌신하기를 바라시는 마음 같았습니다. 옛 사극에서 왕을 위한 궁녀들의 삶을 연상하듯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담임목사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권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 김정자 권사님의 권사회 소개와 활동 상황들을 들었고 권사의 직분은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성도님들의 아픔을, 기쁨을 듣고 같이 기뻐해 주고 아파하고 기도해야함을 얘기하셨습니다. 전지연 권사님



의 회계 보고와 총무 이정미 권사님으로부터 앞으로의 권사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재정적인 업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정기 권사회 회의는 마치고 신입권사와 시무권사님들의 품위와 인격을 자랑하는 자신의 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너무 많이 기다리셨다는 회장님의 말에 순간 기쁨으로 받았지만 내면에 열심히 교회를 위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봉사의 일들에 다소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아픔과 힘든 일을 호소하기 보다는 모든 성도님, 교역자들을 위해 내 귀와 마음을 열고 손과 발이 가야하는 곳에 열심히 다니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평안과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아야하는 권사의 직분에 순간 우울감은 들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최혁 담임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에 다시금 마음을 재 정비하고 순종하여 행한다면 앞으로 권사님들의 활동은 현현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7가지 기도문 낭독으로 권사회를 마치고 우리 자신은 스스로 다짐하며 간구했습니다. 기도문대로 41명의 벨리채플 권사님들의 활동이 주님이 선택하신 “주안에 교회”를 말씀과 사랑의 원동력이 있는 보금자리의 터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 오윤선 기자 |

■ LA 권사회 모임

##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의견 붓물처럼

권사라는 직분의 유래를 살펴보면 원래는 외국 교회에는 없는 직분이며 한국교회에서도 권사제도를 선정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한다. 우선은 교회에 오랫동안 충성해 온 여자 집사님 중에, 당회에서 권사라는 직명을 부여하여 교회에 봉사하게 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교회든지 권사님들의 역할에 따라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권사의 역할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감싸주는 참권사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 "만리장성"에서는 주안에교회 엘에이채플의 권사님들이 이번에 새로이 임직을 받은 신입권사님들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마음으로 교회의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권면하고, 다짐하는 따뜻한 만남의 자리가 시작되고 있었다. 모두 13분의 권사님들이 참석하셨고, 이현옥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환영회의 시작을 알렸고, 서정아 전도사님께서도 함께해 주셨다.



현 권사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나윤자 권사님께서는 환영사를 통하여서 새로운 권사님들의 탄생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으며, 젊으신 권사님들과 함께 잘 융화되고 하나가 되는 본을 보이면서, 교역자와 교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 힘쓰고 모든 일에 맡이 앞서지 않으며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상대방의 허물까지도 사랑으로 보살피는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성숙한 권사회를 만들어가기를 강조하셨다.

즐거운 식사시간과 함께 자기소개의 시간이 이어졌고, 또한 앞으로의 봉사계획과 그에 따

른 의견을 나눌 때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샘물처럼 터져나와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했다. 또한 벨리채플과 플러튼채플의 권사님들과도 서로 협력하여서 주안에교회의 모든 사역에 든든한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다짐하면서 아쉬운 마무리를 해야 했다.

그리 길지 않은 만남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바로 그 한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자리를 뜨는 권사님들의 모습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워하던 바로 그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 오희경 기자 |



## 온 맘 다해 '4주년' 감사!

〈사진: 남성우, 양영, 조원용, 정인섭 기자〉





# 두 팔 쪽 펴고 '주안에 행복'

〈사진: 양영, 이광영 기자〉



■ 5교구(밸리)

## 주 안에서 행복한 만남, 섬김의 릴레이♥♥♥

배진호 장로님과 배미경 권사님이 교구장으로 있는 5교구는 작년 연말 교구 재편성되면서 11교구에서 최형선/정화 집사 구역이 함께 하면서 2개의 구역이 되었다.

1구역에 권기숙, 송재홍, 기아영, 김윤자, 김종국, 박난영, 서동관, 서태욱, 오성태, 오윤선, 이성윤, 이정미, 이해정, 채은영, 현경욱, 현용철, 2구역에는 고기호, 고은경, 김국현, 김윤숙, 김동서, 김은희, 문병훈, 문호선, 박기욱, 박재정, 박영선, 박정규, 최희정, 박춘자, 임중구, 임용자, 최형선, 최정화 등이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두어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녀가 성년이어서 부부간 예수안에 동행하며 인생의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어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열심이 눈에 띄는 교구라고 하겠다.

1구역 식구들은 주안에 교회에서 4년, 몇몇 커플은 이미 20년넘은 호연지기여서 주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말이 실감나는 구역이다. 구역원 대부분이 예배부, 권사회, 교육



부 등에서 봉사하며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고 있기도 하다.

2구역은 은퇴하신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독립하여 2번째 신혼을 맞고 있는 중년부부와 사춘기를 넘기고 있는 질풍노도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가정까지 아주 다양한 구성원이 의외의 팀워크를 보이는 아주 다정다감한 구역이다. 이 각양각색의 구역원을 딸, 아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동생 혹은 친구의 모습으로 구역원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최

형선, 정화 구역장의 따뜻한 아우름이 구심점이 없을 것같은 구성원을 다양성의 장점으로 바꾸었다.

낮설 수 있었던 두 교구의 만남은 오히려 배려라는 마음을 갖게 하여 낮설음이 반가움이 되고 그 반가움을 익숙함으로 만들기 위해 솔선하여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이를 위해 기꺼이 집을 오픈하고 섬기며 또 그 섬김의 마음이 지칠까 또 배려하여 또 다른 가정이 오픈되는 사람의 릴레이가 일어나 이제 5교구의 두 구역은 하나이자 둘인 분이되는 교구, 구역이라 하여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공식적으로는 교구모임이 없지만 RAN-CHO SIMI PARK으로 오늘(8월 27일) 예배 후 소풍을 간다고 한다. 각 가정에 사랑이 넘쳐서인지 주안에 넘치는 사랑이 각 가정과 성도 한분 한분을 물들게 한건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이 넘치는 5교구의 1년뒤가 궁금해지는 탐방이었다.

| 채은영 기자 |

■ 선교국 소식



## 다섯명의 건축전문가들 전깃불 환하게!

8월 10일 목요일, 선교국 국장이신 윤종화 장로님을 비롯한 이인범 장로님, 김영기 장로님, 문병훈 집사님, 문성훈 집사님 이렇게 다섯분의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선교팀은, 작년(2016년) 단기선교때 마무리하지 못한 전기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싣고 멕시코 까말루 지역으로 떠났다.

밸리에서부터 출발하여 멕시코 국경을 통과하고 다시 까말루 지역으로 달려다 보니 거의 까말루 근처까지 와서 1박을 하게 되었고 다음날인 금요일 이른 아침부터 곧바로 전기공사를 시작하였다.

Power pole(전주) 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전

기가 부족해서 전기 wire 를 굵은 거로 교체하고, main breaker 를 100amp 짜리로 교체했고, 전기패널을 큰 거로 모두 교체했다. 포크레인이 땅을 파놓은 대로 전기전선관(PVC conduit) 을 땅에 묻고 전기선 연결을 하여서 성전, 기숙사, 식당, 부속건물들, 크리닉 건물 등에 모든 메인 전기공사를 마무리 시켰다. 그 외에 몇가지 전기공사가 필요한 일들도 기쁨마음으로 모두 완성해 드렸는데도 생각보다 작업이 일찍 끝나서 토요일 새벽에는 각자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으며 모든 과정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입을 모으셨다.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 드린 일이라는 말씀처럼 가난과 낙후한 시설로 고통받고 있는 까말루 지역에 각자가 몸담고 있는 일터도 잠깐 비운 채 단숨에 달려가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마무리 해주고 돌아온 선교팀원들은, 행위보다는 말만 앞서는 부끄러운 신앙인들에게 확실한 선교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이번 까말루 미니선교팀 한분 한분께는 잠시 내려놓았던 세상 것들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특별한 은총이 예비되어 있을거란 확신과 함께 "설렘" 을 감사의 선물로 전하고 싶다.

| 오희경 기자 |



## 새학기 맞아 새로운 각오와 헌신 다짐

8월 주중예배를 쉬는 동안도 최혁목사님의 일정은 더욱 바빴지 않았나 짐작된다. 심방을 시작으로 이러 저러한 이유로 다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테니까 말이다. 그 많은 스케줄 중 하나가 바로 주안에교회의 10년 후를 가름할 차세대를 책임지는 교육부와와의 만남일 것이다. 두번 세번 강조해도 과함이 없는 2세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다소 빗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란스럽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교육부는 이른 아침부터 매우 바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새학기를 맞이하여 채플별로 재헌신과 새로운 각오로 아이들을 섬기게 될 교사들과 행정팀을 모시고 담임목사와 함께 격려의 자리를 가졌다.

2017-18학년을 맞이하는 교육부 교역자들,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은 마음을 다지고 각오를 새로이 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저 내 몸을 움직여 봉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주일 오후 교회를 떠나 다시 주일 아침 교회로 출발하는 그 공백 아닌 공백의 시간이 내 앞에 초롱 초롱한 눈망울로 마주할 학생들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은 재헌신을 말하기전 각자의 마음을 나누며 눈물을 흘리기 바빴고, 턱없이 모자란 교사의 숫자에 마음은 더욱 쫓기



기에 추스르지 못한 마음과 설익은 나의 신앙이 부끄럽다고 말한다.

내가 맡은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했어야 했고 아이들과 목상을 나누려면 난 더 진지하게 깊은 목상을 했어야 했는데... 지난주도, 이번주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섭섭하고 힘들어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음주 혹은 내년 그도 아니면 몇년이 지난 어느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주일 아침 눈을 뜬다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죄송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막상 최혁목사님이 배석하자 그 목직 한 마음은 온데 간데없이 사라진 듯, 모든 결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듯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정말 졸전의 그 무거운 마음이 다 사라지고 헌신하기에 마땅한 상황과 마음이 준비가 되어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이 그 목직함의 시작이 어딘지 알기에 최 목사님 앞에서는 웃음으로 격려하고 싶었다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전해지는 소박하지만 힘이되어 주는 자리였다. 바라기는 이런 자리가 더 자주 있어서 눈으로 주고 받는 격려뿐만 아니라 서로 보듬어 안아주는 것 밖에 못할지라도 같이 울더라도 줄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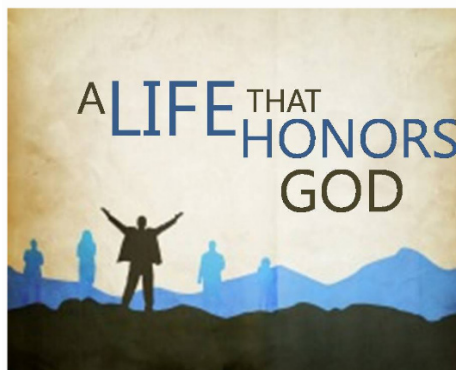
| 채은영 기자 |

### ■ IC Kidz 뉴스레터 만드는 조영일 집사

## 교회학교 소식, 공부내용 한눈에 파악



설교요약



매주 수요일은 모든 교육부 부모님들과 Staff 분들에게 E-news를 보내는 날입니다. 시작하는 벌써 6개월 정도가 되어 갑니다. 아무 준비 없이 단순히 아는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이제는 점점 손에 익어 갑니다.

저는 전도사님들이 준비 해주신 교회 소식, 사진, 또 유익한 내용들을 email이라는 형식의 News letter에 옮기고 보내는 일을 합니다.

제가 속해 있던 교육부 안에서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마음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들과 부모님들은 함께 아이들을 위해 산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또 어떤 일이 앞으로 이뤄 질지를 아주 공적인 방법으로 부모님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진심을 참여해 주시고,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아시고 하나가 된다면 교육부가 더 부흥할 수 있고 더 신나게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젠 점점 이 일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그 자녀들의 부모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매주 보내는 email의 약 50%의 부모님들께서 email을 열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email이 정착이 된 후에 blog를 통한 사역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channel의 소통이 준비가 되어야 우리 주안에교회에 계신 분들에게 동일한 소식을 전하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 합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에 부담과 감사가 항상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 하고 그분의 하시는 일에 기대를 합니다.

■ 칼럼

## 아름다운 공동체, 섬김과 순종

우리 삶 속에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자. 40여 년 전에 미국에 오자마자 LA Downtown에 일을 다니기 시작했다. 멀리 살고, 운전이 익숙하지 않고, 지리도 모르고 일을 해야 해서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버스 정류장 앞 소풍 센터에 차를 세워 두고 다운타운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다녔을 때였다.

가끔 한국 분들을 버스에서 만나는데 봉제 공장에 일하러 가시는 아주머니, 노인회관에 가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다. 그때는 조국이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때였다. 깨끗하고 시원한 버스 안에서 의례히 하시는 것이 신발을 벗고 팔자 좌식을 하신다. 내가 지금 노인이 되고 보니 좋아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 그래서 가장 편한 자세로 탑승 시간을 즐기기 위해 취하신 포즈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 버스 안에는 다운타운 대법원, 이민국, 시청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탑승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백인. 지금은 전철들을 이용하지만, 신발을 벗고 앉아 있는 동양인들 곁에 앉기를 싫어하던 그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한국인들은 그렇게 했다.

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미국인 회사에서 일을 철저히 배우고 싶다고 들어간 것이 16년을 지나게 되었다. 일주일에 하루 한번, 리스팅을 받은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들을 초대해서 집을 보여 주는 관례가 있다. 회사별로 차가 줄을 이어 오픈 하우스 하는 집을 찾아간다. 그런데 이 플라틴은 백인과 동양인이 사는 동네가 구분되어 있는 편이다. 이즈음은 백인 동네에 계신 한국인도 있

지만. 한국 에이전트가 오픈 하우스 하는 곳은 거의 백인 에이전트들이 오기 싫어한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오픈 하우스 하는 동안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실내에 들어 오는 것을 집 주인이 요청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신발 벗는 것을 싫어한다. 동료들 앞에 신발 벗고 맨발로 다니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런 오픈 하우스는 가기를 꺼려한다.

생활의 습관이 버릇을 낳고, 버릇이 팔자를 만든다는 우리 나라 속담이 있다. 우리가 지금껏 가졌던 우리의 습관이 타민족에게는 때로는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한국 민족이 미국에 와서 사는 이민자들이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바른 시민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더군다나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 저절로 나타나야 한다.

교회라는 생활 터전이 우리가 함께 지키고, 가꾸어야 하는 공동의 생활터전이다. 교회 마당에 떨어져 있는 휴지, 화장실 휴지통에 넘치는 휴지들, 자기 접시에 가득 음식을 갖고 가서 먹다가 남겨 버리는데, 뒤에 온 사람들은 음식이 모자라 굶고 있다면,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 교회에서 이런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기도원이 나, 미국인 소유의 retreat center 에서도 성숙한 모습들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 같다. 작은 공동체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를 따라가는 지체들의 순종의 모습이 아름다움으로 나타나 공동체 전체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라

고 생각한다. 지도자가 말한 작은 권한도 남용하지 말고 지켜야 할 성도가 되었으면 한다.

구역이 성숙하면 교구가 성숙하고, 교구가 성숙하면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본토인들은 여러 명이 만나면 더 성숙한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우리네는 만나면 더 미숙해진다. 목소리가 커야 장땡이라는 교육 때문일까? 시민의식이 서야 선민 의식이 세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민의식도 없는데 선민의식이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아이들이 보고 있다. 무엇을 남겨 줄 것인가? 그 누구보다 뛰어난 도덕률을 갖고, 자신을 먼저 자제하는 성숙한 성도의 유산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 주안에 교회는 교역자들이 섬기는 자세로 성도와 교회 앞에 모범이 되어 주고 계시는데 모델을 앞에 두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치가 될 것 같다.

창립예배 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큰 자가 많은 교회. 큰 자는 섬기는 자이고, 섬기는 모습은 종이 되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자를 섬기느냐에 따라 나의 그릇의 크기가 정해진다고 하셨다. 나를 위해 무성한 잎을 피우지 말고 남을 위해 열매를 맺는 섬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섬기는 대상은 모두이다. 나를 미워 하는 사람도 그 안에 있을 것이고, 뒤꿈치에서 내 흉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두가 섬김의 대상이다. 작은 것부터 양보하고, 아주 작은 것에 배려 하고, 섬세한 마음으로 내 옆에 사람을 돌아보는 주안에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하기 어려운 말을 해 본다.

| 이예스터 기자 |

###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이번 노동절엔 가족이나 교회의 소그룹이 함께 모여 맛이 남치는 바베큐 스테이크를 그릴에 구어 먹으면 어떨까요? Happy Labor Day! 박찬신 기자**

**재료** (4인분 기준) 스테이크 용 소고기 2 파운드(1인치 두께/ USDA Prime 이나 USDA Choice 정도의 양질의 것으로 하얀 기름 무늬가 육질 사이로 골고루 퍼져있는 신선한 고기를 권장.), 굵은 바다 소금 약간과 후추가루, 올리브 오일, 바베큐 그릴, 손 잡이가 긴 주방용 집게, Cleaning brush

**조리법** 1. 먼저 바베큐 쿠킹 그릴을 잘 닦고 그릴이 뜨거울 때 올리브 오일에 흠뻑 젖은 종이 타월과 클리닝 브러시를 이용해 그릴에 오일을 입혀 조리시 고기가 그릴에 들러 붙지 않도록 한다. 어느 정도의 연기가 나는 과정은 조리의 어느 과정 보다 중요하다. 2. 얼렸거나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스테이크 고기는 실온(화씨 70 도)으로 녹인 후 종이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다. 3. 굵은 소금 1 큰술에 통후추를 넉넉히 으깨어 넣고 잘 섞어 놓는다. 4. 물기를 제거한 고기에 위 (#3)의 소금과 후추 섞은 것을 뿌린 후 10분 기다린다. 5. 그릴이 뜨거워지면(차콜일 경우 차콜이 하얀색으로 변했을 때, 가스 그릴일 경우에는 가장 높은 온도) 그릴의 뚜껑을 덮어 온도를 유지한다. 6. 굵기: a. 스테이크 4조각을 그릴 뜨거운 그릴위에 적당한 사이를 두고 굵기 시작한다(

### 바베큐 스테이크 BBQ Steak



그릴의 온도가 낮거나, 스테이크의 두께가 두껍다면 조리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b. 그릴의 뚜껑을 열고 스테이크의 위치를 먼저 시계방향으로 위치를 돌려 바꾸고 뚜껑을 닫고 1분간 더 굽는다. c. 다시 뚜껑을 열고 스테이크를 시계방향으로 재빨리 돌려 위치를 바꾸고 뚜껑을 닫고 1분간 조리한다. (가능한 한 그릴이 열려 있는 시간을 줄여 그릴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d. 스테이크를 뒤집는다. 그릴에 닿지 않은 쪽이 화색이 아니면 1분 정도 더 익힌 다음 뒤집는다. e. 스테이크를 시계방향으로 1분씩 2번 돌려 익힌다. f. 스테이크 가장자리에 파색이 보이지 않고 표면이 짙은 갈색으로 집어 올렸을 때 표면의 굳기가 턱을 누를 때 정도면 약간 덜 익힘(medium rare)이고, 코 끝을 누를 때 정도면 익힘(medium), 이마를 누를 때 정도면 잘 익힘(well done)으로 취향에 맞는 굵기를 선택 그릴에서 꺼내어 고기의 열과 육즙이 고기에 잘 배이도록 5분 정도 기다린 후에 상에 올린다. 7. 준비된 스테이크는 통 조각으로 혹은 작은 조각으로 자른 후 구운 감자나 샐러드 야채, Garden Salad, 현미 빵과 함께 상에 올린다. \*취향에 따라 원하는 Sauce 를 곁들여도 좋다.

■ 주안에빛 간증

## 성경의 맥이 잡히니 공부에 재미가...

주안에 빛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주 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실 때 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사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 하루에 몇장씩 읽어 왔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쪽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시대의 배경과 사상, 형편 등을 잘 모르기에 때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마음이 아닌 저의 마음대로 해석하며 읽는 부분이 많았겠지요.

통큰통독에서 스토리라인과 핵심구절, 핵심단어, 지도, 도표 등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사역자님들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함께 설명해주시 성경을 읽어 가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맥을 잡아주기에 더 재미있고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주안에 빛을 12주 동안 하기엔 너무 짧아 아쉽습니다.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시한번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주안에 빛을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인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 주안에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라고 하신 것은 아닌지... 우리의 참 빛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말씀에 기초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지식으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주시길...



최승희 집사 (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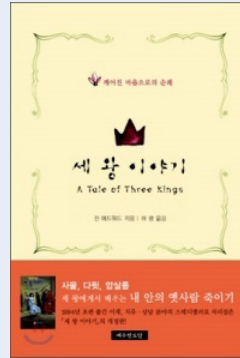
<1면서 계속> 우리의 귀를 호강시켜주는 STRING ENSEMBLE과 CREDO 중창팀, 언제나 역동적인 코람데오 한어청년부의 바디워십, 우리만 듣기 아까운 수준 높은 ICCB BAND의 재즈연주, 마음 깊숙히 묻어두었던 뜨거운 청춘을 깨우는 웅장한 북소리와 워십이 곁들여진 ICY중고등부의 performance는 앵글을 부르고 싶어질 지경이었다. 또한 세 채플이 함께한 연합성가대의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정직하고 담백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 주었다.

교육부 각 졸업생들에게 졸업장 수여를 하며 온 성도가 함께 그들이 마주하게 될 날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담임목사님께서서는 “큰 자가 많은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을 결단기도와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을 갖추길 독려해 주었다.

교회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지내왔고 또 겪어야 할 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까지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채근하지만 디딤은 한 걸음 한 걸음, 시선이 닿고 마음이 가는 모든 상황과 순간이 하나님과 통하여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였다.

■ 추천도서 [세 왕 이야기]

## 쓰임받기 위한 사람들의 과정



이 책을 쓴 진 에드워드는, 이 책을 권위주의에 의해 상처 입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교회의 분열과 다름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또 많은 교회에서 책을 구입하여 읽을 수 있도록 추천하였습니다.

이 책은 개인적인 치료와 은밀한 피난처가 되기 위해 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기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우리도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다윗처럼, 깨어짐을 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진정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다윗처럼 시기와 질투,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당해도 대항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온유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책을 통하여 답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되어 이 책을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은 기독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우 비즈니스



**Deborah Hwang**  
Energy Consultant

**Head Office**  
1367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06  
**OC Branch**  
13417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Cell. 949. 874. 8825**  
Tel. 844. 264. 7336  
Fax. 213. 341. 0144  
deborah@amgreensolutions.com  
[www.amgreensolutions.com](http://www.amgreensolutions.com)



## 주안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 '영상예배' 거부감이 뜨거운 눈물로

오랫동안 섬겼던 작은 교회를 떠나, 지난 몇 달간 예배만 드리는 반쪽짜리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벨리에서 큰 교회라는 한 교회에서 몇 달을 예배 드려도 아무도 등록하라고 권면하는 사람도 없었기에 오랜만에 참으로 흥분하게 주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딸 아이가 ICY 금요일예배에 몇 번 참석하더니, 주일예배를 그곳에서 드려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ride 문제도 있고, 주안에교회 예배에 참석하고픈 마음도 있어서 그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예배는 영상예배여서 실망스러움과 약간의 거부감으로 시작되었는데, 예배의 끝은 깊은 감동과 은혜와 뜨거운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할때에 예배에 감동이 있는 곳이면 그 교회에 정착하겠노라 마음먹었던 터라, 이미 첫 예배 후 제 마음은 주안에교회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예배 때나 목사님 말씀을 CD로 들을 때마다 저는 그동안 "참으로 신앙생활 잘 못했구나,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지?" 그런 마음이 들었고, 말씀에의 도전과 신앙 양심에 걸림과 거룩한 부담감이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제대로 신앙 생활하고픈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하고 자유롭게 예배만 참석하기를 계속했는데, 새가족국의 예리한 눈길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들의 권면과 집사님들의 따뜻한 섬김이 더이상 등록을 미룰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지난 6월말에 주안에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전 제 기도대로 신실하신 구약장님과 좋은 구역 식구들을 만났고, 거기에 사람이 많으신 교구장님까지 계신 든든한 9구역 3교구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젠 부족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목사님 CD를 듣는 중에 제게 신앙 고백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니 제가 좋아하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제 신앙 고백이 되어서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 이현숙 집사(벨리) |

### Abundantly Blessed

It is truly amazing how good our God is. Though I have been blessed in so many ways throughout my life, I feel God had plans to bless my life even more abundantly through ICCC. During the short amount of time I have attended this church, I learned God's truths spoken powerfully through Pastor Choi from a fresh new perspective presented as I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It is incredible how biblical facts from the old testament come alive and become so relevant in my life with Pastor Choi's teaching. Listening and learning through God's messages proclaimed by the pastor, I have come to realize how immature my faith is and I found myself longing to live obediently, to become truly humble, to serve with servant's disposition, and to seek God's will in everything I do throughout each day.

Members of the congregation have shown much kindness toward me, a total stranger, and demonstrated servanthood through their work at church as our Lord Jesus exemplified while He was with us here on earth. Pastor Yang and Pastor Lee have also shown loving kindness every time I met them which has been so encouraging and uplifting.

It was not by chance that I have come to ICCC to worship the Lord and listen to His words. Through several very unlikely events, God led me here gently urging me to grow spiritually and to become transformed to be more like Him. I am immensely grateful for His guidance in my life and look forward to serving Him according to His plans.

| 황은주 집사(벨리) |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벨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LA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30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데오예배**/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 벨리채플

새벽 예배

**벨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중고등부)

**벨리채플**/ 주일 오전 11:00, 금 저녁 7:3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목 저녁 7:15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수 저녁 7:30

**Logos(영어청년부)** 벨리&플러튼채플/ 주일 오후 1:30

**Coram Deo(한어청년부)** 벨리채플/ 주일 오전 11:0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 벨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 “주안에” 2017년 9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데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오병순, 오윤선, 오희경, 이예스더, 이지현,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